

데스크 시각



채 희 중
디지털 본부장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신문과 방송, 각종 매체들은 앞다투어 투표 독려 기사와 칼럼을 내보내고 있다. 뽑을 사람이 없고, 그 늑이 그 늑일지라도 그중에서 덜 나쁜 늑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이런 주제는 매 선거 때마다 대동소이하게 되풀이 됐고,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는 ‘잘못 뽑은 지도자가 국민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는 계엄·탄핵발 대선을 강조하는 주제들이 추가됐다. 그럼에도 21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대선 중 가장 분위기가 뜨지 않는 심심한 선거임에 분명하다.

계엄·반란세력에 대한 국민의 응징

이번 대선은 별다른 재미도 없지만 성격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다. 인물과 공약은 볼 것도 없고 여야 대결도, 좌우 대결도 아닌 탓에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계엄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시대성이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21세기에 군대를 동원한 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는 것은 상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3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41위로 우리의 정치 수준이 수리남(40위)과 남아프리카공화국(36위)보다 못한 나라으로 떨어진 것도 윤석열 정권

새 정부는 탕평할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

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윤석열의 계엄·탄핵(반대)·부정선거음모론과 이별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패배는 정해진 결론이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 의견이 50~60%대를 형성한 것을 감안하면, (선거일까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민의힘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공표 시점까지의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1.2위 후보간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판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게 확실하다. 결국 대선 판전 포인트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여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격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 정도이다.

소중한 한 표가 국가를 살리고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주권 행사의 소명감을 느끼기 어려운 미팅한 대선임에 틀림없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느긋한 반면 윤석열 후보를 뽑았던 1639만 여명의 유권자들은 착잡한 심정일 것이다.

대선이 끝나면 역대 정권들은 첫 인사에 많은 공을 들였다. 국정에 대한 첫 평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인수 기간 없이 선거 다음날 당선자가 바로 집무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 정권들에 비해 인사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권의 첫 번째 임무가 계엄과 탄핵으로 갈라진 정치와 민심을 아울러야 한다는 점에서 새 대통령은 인사의 초점을 탕평에 맞춰야 할 것이다.

탕평이란 단순히 당파에 치우침 없이 끌고루 등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도자의 오류를 막는 견제장치이다. 새 대통령의 인사가 새 정부의 활력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되 상대 진영이나 정적도 중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동시

에 자신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역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탕평 인사는 언제나 주효했다. 조선시대 서인 세력을 기반으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인조는 백성들의 반발과 혼란이 일자, 반대당파인 남인의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올려 민심을 달래고 임기 초반 정권의 초석을 다졌다.

상대 인정하고 끌어안는 리더되길

역사가 긴 중국의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중국 중흥기를 이끌었던 당 태종은 황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형의 책사로 자신을 수차례 죽이려 한 ‘위정’이라는 인물들 ‘항상 험담을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중용했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환공은 자신을 죽이고 형을 군주로 세우려한 ‘관중’을 발탁했다. 이렇게 발탁된 이들로 인해 당나라와 제나라가 중흥기를 맞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탕평의 극치는 가장 싫어하는 이를 중용하는 것이다. 정치를 함에 있어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요직을 맡겨 여러 사람을 평안케하는 것을 일컫어 웅치봉후(雍熙封侯)라고 한다. 이는 한고조 유방이 싫어하던 웅치(雍齒)를 제후에 봉한 데서 유래했다. 유방(劉邦)이 나라를 평정한 후 측근이 아닌 사람이나 정적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불만에 떨자 가장 싫어한 신하인 웅치를 되레 승진시켜 주변을 안정시켰다.

결론로는 국정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총성과와 측근들로만 똘똘 뭉친 윤석열 정권의 계엄·반란 사태가 바로 탕평 인사가 필요함을 극명하게 방증하고 있다. 계엄 이후 극도로 불안한 정국에서 국민들은 정적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 상대 진영의 사람과도 동행할 수 있는 넉넉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YOLO 가고, YONO 왔다

축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가성비를 추구하고 과소비를 줄이게 되었다.

이같은 흐름에 맞춰 유통업체에서는 초저가 상품을 내놓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편의점 매장이 가장 많은 C*에서는 ‘880육계장라면’을 선보여 100만 개, ‘990딸기우유’와 ‘990초코우유’를 200만개나 팔았고, 2000원에 가깝던 ‘삼각김밥’을 990원에 출시하여 초가성비 상품으로 매출을 견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G****은 물가안정을 내세워 일상적 소비가 필수적인 식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리얼프라이스’ PB상품을 내놓아 1년만에 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가하면 1000원이하 상품 매출이 46.5%나 증가했다.

5000원이하 군일가상품을 판매하는 다**몰의 이용자는 2021년 142만명에서 2025년 362만명으로 2.5배나 늘었는데 하버 생활용품에서 화장품과 식품으로까지 취급 품목을 확대했다. 오프라인 매장은 로드샵이나 대형마트 위주 입점에서 최근에는 백화점과 아울렛에 들어가 인근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중고거래의 대명사인 당*에서는 디지털기기, 가구, 생활가전, 의류잡화가 주종이었지만 최근들어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중고차 하루 평균 거래 건수가 2000대, 앱 이용자는 2021년 1465만명에서 2025년 2216만명으로 증가하여 전 국민의 43%가 이용하고 있으니 가히 국민 소매판매이라 불릴만하다.

신용카드에 밀려 관심을 끌지 못했던 체크카드도 주

목받고 있다. 할인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약해 외면받던 체크카드는 잔고내에서만 쓸 수 있어 계획소비가 가능하고 연회비 부담이 없다. 그러나 연말소득공제는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체크카드는 30%나 되니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2.2% 증가한 데 비해 체크카드 이용액은 51.8%가 늘었다. 1990년대 초 가족과식의 1번지로 각광받던 아**·베**스, T*** 등 패밀리 레스토랑은 불황과 소비침체, 새로운 외식문화 등으로 부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평일은 정각에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합리적 가격을 표방하는 애****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다 비빔밥이나 브리또 등 이것저것 조합해 먹을 수 있는 재미를 추가하여 전년 매출액 대비 7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만원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하기가 만만찮은 요즘은 ‘런치플레이션’이란 신조어도 생겨났다. 점심의 ‘Lunch’와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n’의 합성어로 점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호텔에서 달콤한 휴식과 여유로운 조식을 즐기던 ‘호캉스’, 저명한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먹는 ‘오마카세’와 옷 한벌, 장비 하나에 수 십만원씩 드는 골프 ‘플렉스’를 즐기던 MZ세대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당*에서 중고옷을 구매하며 소박한 런닝크루가 되는 것은 공통점이 아니라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안목이 있어 보여 다행스럽다.

산불 예방, 중요한 것부터 준비하자

더디 가는 듯하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눈여겨 볼 지점이 하나 있다면 지난 3월 경남·북에 대형산불이 발생한 온 국민이 불안과 안타까움으로 마을 줄이던 그 시기에 산불 발생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산불 관련 안타까운 소식에 국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조심을 생활화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 산불 조심 표어에 등장하는 작은 실천들이 효과 있는 산불 대책이면서도 기후 및 산림 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난화 되어가는 최근의 산불 앞에서는 최선일 수 없다.

올해 경남 지역의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표출된 조림 및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정책에 대한 견해차부터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치우개산, 산불 진화 헬기 노후화, 주민 대피 등 많은 의견들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 헬기업체 3곳에서 임차한 산불 진화용 헬기 8대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들 헬기의 기령은 모두 20년을 초과한 상태이며 50년이 넘는 기종도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화에 필수적인 헬기들의 노후화는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매년 약 61억 9000만원의 임차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대응 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헬기 교체 및 장비 현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당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정책에 반영하되 모든 논의와 결정들이 향후 50년 숲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50여 년의 국토 녹화 운동을 통하여 산림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반세기 가꾸어온 우리의 숲을 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산불-산사태 등의 산림 재난은 이러한 노력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향후 50년 산림 관계자들의 과제일 것이다.

지금까지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온 숲을 물들이는 녹음이 마냥 싱그러울 수가 없다. 그럼에도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오히트는 새싹이 향후 50년 우리와 함께할 숲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산불로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제자리 찾기를 기원한다.

社 說

끝내 내란세력과 야합한 이낙연의 배신정치

정치인 이낙연의 본색이 드러났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고문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김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며 “그에게 제한표를 주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서 김 후보와 공동정부 구성, 개헌추진 협력,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 3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사될 일도 없지만 황당할 지지선언을 보면서 정치인 이낙연의 마지막이 결국 그에게 꽃길은 깔아 준 호남과 친정 민주당에 대한 배신으로 귀결되다니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말처럼 너무나 부끄럽고 슬픈 일로 이낙연이 서 자를 호남에서 지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의 배신정치는 야합의 대상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부른 내란세력이라는 데 충격적이다.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밀려난 후 스스로 민주당과 등진

이래 여러 차례 세력화를 모색하다 실패했지만 설마 내란세력과 손잡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집권을 괴물 독재국가 출현이라고 표현할 정도인 것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 대변인의 성명처럼 권력을 향한 탐욕에 신념과 양심을 팔아넘긴 이 고문이 괴물이 라는 비난에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이 고문의 야합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으로 반헌법·반민주·내란 연합이다. 내란공범 기자에 올라탐으로써 제 손으로 정치생명을 끊었다고 할 것이다. 정치인 이낙연의 본색이 배신이자 변절이었다니 안타깝다.

정치인이 정치 무대를 떠나야 할 시점은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미워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비난만 남았을 때라고 한다. 이 고문은 오래 전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끝내 내란세력과 야합함으로써 불명예 퇴진이라는 무덤을 스스로 팠다. 뭐라고 할 것인가.

‘금타 화재’ 총체적 난맥 드러낸 광주 환경당국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과정에서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당국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시민 알권리 보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기오염 정보만 제공해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을 측정했지만 시민들에게 공개한 항목은 벤젠 등 4종에 불과했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사용을 금지한 대기오염 평가 지표를 활용해 오염도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에게 외출해도 문제없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도 모자라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대기 중 중금속 측정은 불이 꺼진 후 측정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광주시가 중금속 측정을 시작한 것은 화재 발생 나흘째인 지난 20일이었다. 소방당국은 전날인 20일 완전 진화됐다고 선언했는데 불이 꺼진 후 중금속 측정에 나선데다 타이어공장 화재시 많이 배출되

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측정하지도 않았다.

광주시는 뒤늦게 이같은 부실 대응을 일부 인정했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매뉴얼이 없어서’ ‘측정 장비 운영기간이 아니라서’라는 변명은 광주시 환경행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중금속은 수동으로 한 달에 5일간 측정해 5월 전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측정 기간이 아니라서 안했다’가 가장 노릇이다. 생고무와 타이어가 적재된 타이어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녹장 검사에다 매뉴얼 탓만 하고 정작 중요한 발암물질 측정을 안한 것이 광주시 환경행정의 현주소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광주시가 입맛에 맞는 선택적 정보로 ‘안전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은 시민들을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시킨 범죄행위와 다를바 없다. 지금부터라도 한계를 드러낸 유해물질 측정 시스템과 실효성을 높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단오하면 빠질 수 없는 식물이 창포다. 창포는 액운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효험을 가진 식물로 여겨왔다. 일 년 중 양기가 가장 세진다는 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창포 뿌리를 비벼를 만들어 쫓는 세시풍속이 전해지는 이이다.

하지만 세시풍속으로 단오의 명성이 시들해지면서 창포에 대한 관심이 전과 같지 않다. 예전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대대적인 경지정리가 마무리됐고 제조제 사용이 늘면서 지금은 희귀식물이 됐다. 여기에 모양이 비슷

창포와 꽃창포

한 창포꽃이나 꽃잎은 독세하면서 구별하기도 어려워졌다. 창포는 인공 종자번식은 거의 불가능하며 포기나누기에 의한 증식이 가능할 뿐이다. 근경은 굵고 옆으로 뻗으며 마디가 많고 밑부분의 수염뿌리가 특이한 향을 내는 방향성 식물이다. 꼬마 옥수수 모양을 한 작은 작은 암술과 수술이 모여 길쭉한 이삭꽃차례를 형성하며 꽃잎이 없어 화려하지 않은 ‘안갯춘꽃’이다. 비슷한 종으로 약용으로 쓰이는 석창포는 산골짜기 맑은 냇가 바위틈에서 자란

다. 창포와 비슷하지만,, 잎이 더 좁고 너비는 1cm 미만이며 길이가 짧고 뿌리가 더 가늘다.

문제는 꽃창포다. 창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떨어져 가다 보니 꽃창포와 혼동해서 생기는 오지 못할 혼곡도 많았다. 모삼포 회사에선 성분이 천연 재료와 가깝다는 의미로 게재한 삼포 광고에 창포와 전혀 다른 꽃창포 사진을 넣은 적도 있었다.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설명은 창포에 관한 것인데 사진은 꽃창포를 올려 놓은 곳이 더러 있다.

창포와 꽃창포는 전혀 다른 식물이다. 창포는 천남성과이며, 꽃창포는 붓꽃과다. 꽃창포는 창포와 달리 꽃이 화려해 ‘꽃이 피는 창포’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향기와 꽃 모양은 물론 성분도 창포와 판판이다. 꽃도 적자색으로 피며 원줄기 끝에 2~3개가 달리고 화피 안쪽에 황색 줄무늬가 있다. 물론 함유 성분이 다르니 머리를 감거나 목욕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창포와 꽃창포 등 유사식물을 보며, 식물을 넘어 사람의 쓰임새에 대해 생각해 본다. /김대성 전남 사·중부 전북 취재부장

기 고



이 길 용
구례군 부군수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지나고 산불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되었다. 산불 관계자들에게는 후련함 보다는 무언가 큰 숙제를 떠안은 2025년 봄이었다.

지난 3월 경남·북에서 발생한 ‘괴물 산불’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와 위력으로 우리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우리의 일상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산불이 도심지는 물론 바닷가까지 경계를 넘나들며 재난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현실이 되었을때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옛말은 말 그대로 과거의 것이 되었다.

6·25전쟁 이후 황폐화된 지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들의 십시일반 모금 운동으로 최초의 국립공원 지정을 이루어낸 구례군 또한 올해 봄은 유난히 더디 오고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법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